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의 對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한-미 FTA 관련 통상압력 / 2

II. 철강 수입규제 강화 / 4

- | | |
|---|----------|
| 4 | 1. 최근 동향 |
| 7 | 2. 배경 |

III. 기타 통상압력 / 9

IV. 향후전망 및 시사점 / 10

요 약

- (배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외교 대표 업적인 TPP 비준을 위해 한-미 FTA 포함 既체결 FTA의 철저한 이행 및 성과홍보 강조
 - 미국이 체결한 17개의 FTA 대상국 중 한국과의 무역수지가 가장 가파르게 악화
 - * 대한 무역적자 연도별 추이 : ('11년)132억\$→('13년)207억\$→('15년)283억\$
 - ** 무역적자 증가로 미 무역위원회에서 6.29 발간예정인 기체결 FTA에 대한 미국 경제영향 평가보고서에서 한-미 FTA 평가가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
 - 주요 대선 후보들을 비롯하여 TPP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여 선행모델인 한미 FTA에서 한국의 충실한 이행 및 문제점* 해소 강조
 - *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투명한 조사 등
 - 중국 주도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 및 금속품목*에 대해 11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진행중
 - * 해당품목의 대미 수출액('15년) : 16.4억\$, 수출비중 2.3% 차지
 - ** 국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대상국 순위 : 중국, 인도, 대만, 한국順
- (대응방안)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윈-윈 파트너십 필요
 - 한국 기업의 미국내 그린필드 투자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 지역경제 개발 및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등 적극 홍보
 - * '15년 기준 107억 달러(수입 : 217억 / 수출 : 110억 달러, 美상무부)
 - ** 일본은 자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홍보하는 보고서 매년 발간
 - 대한 수출 및 대미 투자에도 협력하고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지방 정부와 우호적 관계 구축하여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
 - * 미국 SelectUSA와 일본 JETRO는 MOI 체결하고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진출 지원
 -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形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의 체질 개선 시급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양자간 통상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OECD, G7, WTO 등 다자간 기구를 통한 국제적 해법모색 노력에 동참

I | 한-미 FTA 관련 통상압력 배경

- **[TPP]**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기체결 FTA의 철저한 이행 촉구
 - 지난 2월 4일 가입국들이 TPP 협정문에 서명하고 5월 19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TPP에 대한 미국 경제 및 산업 영향 평가보고서¹⁾를 발표하면서, 의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황
 - 이런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 TPP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여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PP 비준이 불투명
 - 5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TPP 비준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경제외교 업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TPP 비준을 위해 기체결한 FTA의 철저한 이행 노력 및 성과 홍보 필요
 - 특히, TPP의 선행 모델로 평가되는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잠식시키기 위해 한국 측의 충실한 이행 및 기타 문제점 해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
 - * 의약품 결정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투명한 조사,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정부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²⁾
 - 특히, 기체결 FTA에 대한 경제 영향 평가보고서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있어, TPP 반대여론 악화에 대한 미국 행정부 우려 가중
 - 지난해 제정된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에 따라, USITC는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 행정부가 TPA를 활용해 체결한 모든 FTA에 대한 미국 경제 영향 평가보고서를 오는 6월 29일까지 발표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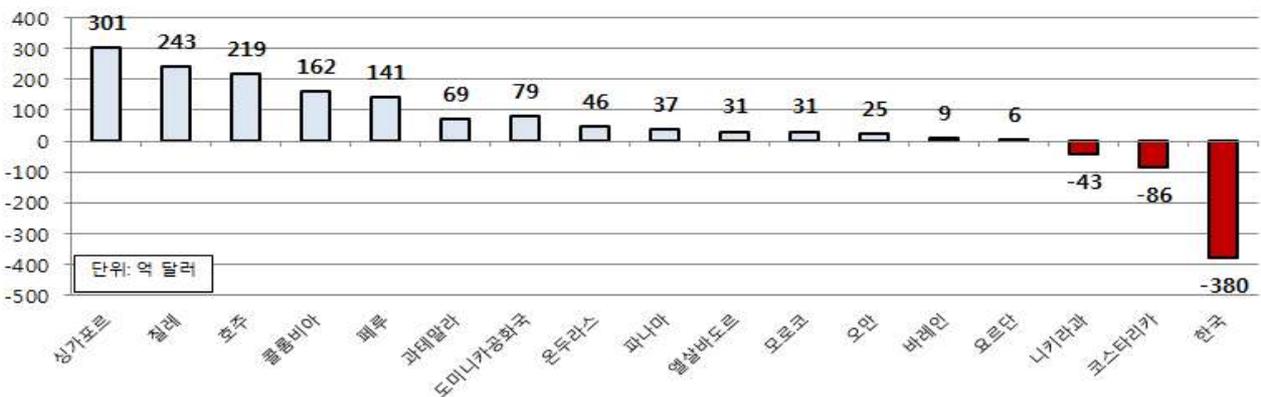
1)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607.pdf>

2) 지난 2월 오린 헤치 상원 재무위원장이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제기한 한-미 FTA 미이행 사항 및 문제점

□ **[무역적자]** 한-미 FTA 체결 이후 불어난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 고조

- 미국 중도성향 싱크탱크 Third Way가 내놓은 분석 자료(4.29)³⁾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발효된 미국의 FTA 중 한-미 FTA를 무역수지 성적 최하위로 집계
- 각 FTA의 발효 전 3년과 최근 3년('13~'15)간 FTA 대상국과 미국 간 무역수지를 비교했을 때, 총 17개 FTA 중 한국과의 무역수지가 가장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이 체결한 FTA의 발효 전후(3년) 무역수지 변화 비교>



[자료원] Third Way.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작성

-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에서도 한국과의 무역적자 폭이 가장 가파르게 확대된 것으로 집계 됨.

<미국의 주요교역국과의 상품교역 적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전체	740,646	741,171	702,587	741,462	759,307	3.2%
중국	295,250	315,103	318,713	343,079	365,695	6.0%
EU	99,395	116,383	125,557	142,058	153,318	14.0%
캐나다	34,033	31,613	31,803	35,377	14,864	-12.1%
멕시코	64,585	61,719	54,485	53,825	58,364	-2.5%
일본	63,128	76,456	73,358	67,176	68,648	2.7%
한국	13,200	16,616	20,747	25,047	28,329	23.0%

[자료원]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 / * 5개년 연평균 증가률(CAGR)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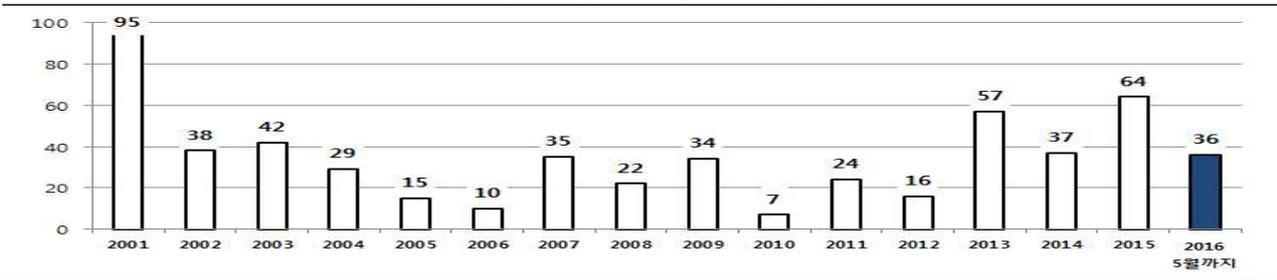
3) <http://www.thirdway.org/report/night-and-day-post-nafta-trade-deals-yield-steady-surpluses>

II 철강 수입규제 강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1. 동향

- **[최근동향]** 지난해 총 64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하며 2001년 이후 최다 건수 기록 … 올해도 벌써 36건 개시
 - 2002년 부시 행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직전년도인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 기록
 - 올해 5월까지 이미 36건의 신규 제소가 접수되어, 현재 추세를 보아 올해 지난해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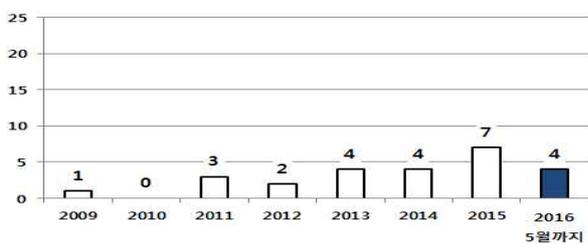
<연도별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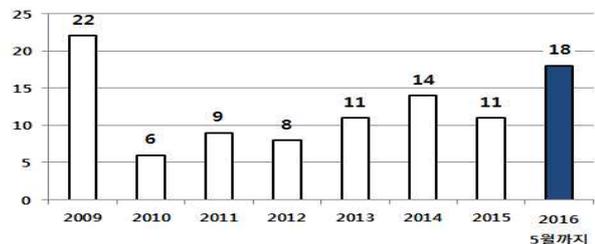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자료,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집계

- **[대한국]** 한국산 철강 및 금속 제품에 지난해 7건에 이어 올해 벌써 4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지난해 개시한 총 64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중 한국산에 대한 조사는 7건으로 중국(11건) 다음으로 인도와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남.
 - 올해에는 중국산에 대한 제소가 전체 조사 개시 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산도 4건이나 조사가 개시되며 두 번째로 많음.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건수>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건수>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자료,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집계

□ **[현재 진행 중]** 현재 한국산 7개 품목에 대해 11건의 반덤핑(7건) 및 상계관세(4건) 조사 진행 중

- 미국이 현재 조사 중인 한국산 품목은 모두 철강 및 금속 제품으로 해당 7개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약 16.4억 달러에 달함.
- 지난해 총 대미국 수출액 중 약 2.3%를 차지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 이례적으로 구리모합금 인동(Phosphor Copper) 제품, 페로바나듐 등 비교적 수출액이 낮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제소도 진행 됨.
- 최근 12개월간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3% 미만일 경우 조사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한국산 구리모합금이 미국 수입시장 내 99%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페로바나듐 역시 20% 이상을 기록 중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일정>

품목	분류	상무부 조사개시	ITC 예비판정	상무부 예비판정	상무부 최종판정	ITC 최종판정	'15 대미수출액 (천달러)
부식방지 처리 강판	반덤핑	'15.6.23	'15.7.24	'15.12.21	'16.5.24	'16.7.8	509,070
	상계	'15.6.23	'15.7.24	'15.11.2	'16.5.24	'16.7.8	
용접각관	반덤핑	'15.8.10	'15.9.4	'16.2.22	'16.7.13	'16.8.29	40,622
냉연강판	반덤핑	'15.8.17	'15.9.11	'16.2.29	'16.7.13	'16.8.29	212,379
	상계	'15.8.17	'15.9.11	'15.12.15	'16.7.13	'16.8.29	
열연강판	반덤핑	'15.8.31	'15.9.25	'16.3.14	'16.8.3	'16.9.17	649,452
	상계	'15.8.31	'15.9.25	'16.1.8	'16.8.3	'16.9.17	
구리모합금	반덤핑	'16.3.29	'16.4.21	'16.8.16	'16.10.31	'16.12.14	4,305
페로바나듐	반덤핑	'16.4.18	'16.5.11	'16.9.6	'16.11.21	'17.1.3	15,981
탄소 및 합금 강판	반덤핑	'16.4.28	'16.5.20	'16.9.15	'16.11.29	'17.1.13	210,028
	상계	'16.4.28	'16.5.20	'16.7.5	'16.9.15	'16.10.31	

[자료원] 상무부, ITC, World Trade Atlas /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작성

*주: 상무부 및 ITC 판정은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향후 미국 관보에 연기 여부 모니터링 필요

- **[관세 부과 현황]** 현재 총 330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중이며, 약 56%가 철강 및 금속 관련 제품
 - 4월 말 기준, 미국이 시행 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는 총 330건이며, 266건의 반덤핑 관세 및 64건의 상계관세 부과 중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관련 제품이 전체 수입규제 건수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비중이 더욱 늘어날 전망
 -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61개 제조건 중 철강 관련 제품이 75%의 비중을 차지
 - 국가별로는 중국이 132건으로 미국의 총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중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총 18건으로 중국, 인도, 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건수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대상
 - 올해 들어 미국 상무부에 접수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청원 총 36건 중 중국이 18건, 한국이 4건, 인도 2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1건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대만을 제치고 중국, 인도에 이어 미국에 가장 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대상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품목별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건수>

품목	수입규제
제철품목(Steel Mill Product)	75
캐스팅 등 기타 철강 품목	44
파이프 철강 품목	42
금속 및 광물	24
농·식품 및 목재 등	22
화학 및 의약품	48
각종 제조업 품목	56
플라스틱, 고무, 유리, 석조 등	13
의류 및 섬유	3
기계류 및 전자/과학 장비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주요대상국>

국가	반덤핑	상계	총
중국	99	33	132
인도	15	8	23
대만	21	1	22
한국	15	3	18
일본	15	-	15
베트남	9	3	12
인도네시아	8	3	11
터키	5	5	10
멕시코	10		10
총	266	64	330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 2016년 4월 28일 기준

2. 배경

□ [철강] 중국 주도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미국의 대응

-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으로 인해 저가의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철강업계가 강력한 무역구제 대응을 촉구
 - * OECD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생산설비 확대로 전세계 철강 생산설비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2배 이상 상승하고 최근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철강 수요는 하락하고 있어 공급과잉 현상 악화
- 미국 연방 의원 및 철강협회는 한국 역시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으로 덤핑하고 있다며 비판
 - 또한, 초과 생산된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 상무부는 철강 과잉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무부 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인력을 38명 증원할 것이라고 밝힘⁴⁾
 -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판정 업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한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청원서 작성, 타국의 시장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는 『청원 자문 및 분석팀』(Petition Counseling and Analysis Unit)을 운영 중
- 또한, 상무부의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철강 품목의 수입 관련 정보수집 및 무역구제 제소 용이
 -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SIMA, 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은 철강 수입 정보를 타품목 대비 7주 정도 먼저 제공하고 있으며, 품목 및 원산지별 수입금액 및 물량을 제공
 - * 미국은 2002년 철강 201조 세이프가드 발동과 함께 민감 제철 품목(steel mill product)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의무화하고 수입량 및 금액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현재까지 운영 중

4) <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steel-overcapacity-impacts-041316.pdf>

□ **[판정]**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기준 및 절차 변경으로 수입규제가 용이해지며 미국 기업의 제소 증가

- 지난해 6월 제정된 ‘미국 무역집행 효율성 법’(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및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제소 증가

* 지난해 6월 29일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회생법이 포함된 법안(H.R. 2146)에 개정 조항으로 추가되어 제정 됨.

<p>○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판정 관련 주요 수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ITC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산업피해 조사에서 미국 산업이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실적이 향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할 수 없도록 규정 - 미국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시, 미국 산업의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에만 치중하지 않고 총 수익 및 매출도 고려해야 하며, 미국 업체들의 채무상환 능력, 자산 수익 등도 고려 - 또한, 시장규모를 산정하는 방법도 일부 수정해 시장 내 수입품의 비중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규정
<p>○ 미국 상무부 판정 관련 주요 수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외국기업이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측 미국기업이 제공한 정보 등 불리한 정보(Adverse Facts)를 사용해 덤핑마진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여론]** 미국 대통령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표출된 반자유무역주의 정서 팽배

-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65%로 반대(22%) 보다 무려 43% 포인트 높게 조사 됨.
- 이번 미국 대선과 연방의회의 승부처가 될 러스트 벨트(Rust Belt)⁵⁾ 지역에서 블루칼라 계층의 반자유무역주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행정부로서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

5) 러스트벨트 : 과거 미국의 대표적 공업지대로 번창했다가 제조업 쇠퇴로 몰락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철강 산업이 번성했던 피츠버그, 기계·석탄·방직 산업이 발달했던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등을 포함

III 기타 통상압력

- **[WTO]** 한국인 WTO 상소기구 판정위원의 연임 반대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판정 앞두고 미국의 영향력 과시 우려
 - 미국의 독단적인 반대로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한국인 위원인 장승화 위원의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황
 - WTO 상소기구의 현직 위원들을 비롯해 전직 위원들도 미국의 결정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
 - 특히, 미국의 결정에 반대한 전직위원 중에는 미국인도 3명* 포함
 - * James Bacchus, Jennifer Hillman, Merit Janow
 - 올해 12월 WTO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WTO 최고 판정위원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
 - 또한, WTO 상소기구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판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 미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최다 피소(126건) 및 제소(109건) 국가⁶⁾로 미국의 영향력 과시가 WTO 판정의 공정성을 위협
- **[환율]** 재무부의 반기별 환율 보고서에 따른 부담 가중
 -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독일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
 - 5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적정환율 관련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위안화는 적정환율 수준으로 평가한 반면, 원화는 약 4.6%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⁷⁾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력 가중 우려

6)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7) <https://piie.com/system/files/documents/pb16-6.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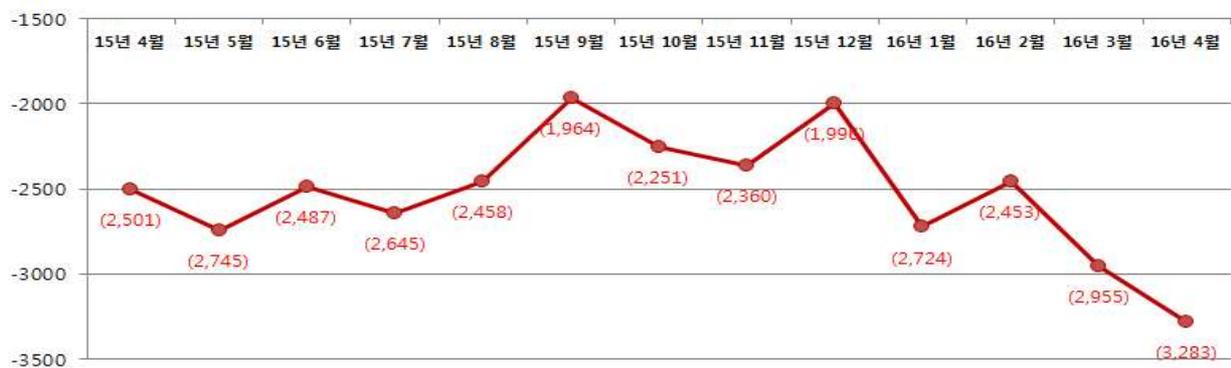
IV | 향후전망 및 시사점

□ **[FTA]** 올해 4월 한국과의 무역적자 사상 최고치 기록해, 한-미 FTA 및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통상압력 지속 전망

- 지난 6월 3일 발표된 미국의 4월 무역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월별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한-미 FTA의 불균형적 혜택에 대한 불만 가중 우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통계청, World Trade Atlas,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작성

- 또한, 양국간 무역수지 추이로 보아 오는 6월 29일 발표될 미국의 기체결 FTA에 대한 미국 경제 영향 평가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 관련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하반기 TPP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PP 관련 하원 세입위원회 및 상원 재무위원회의 공청회에서 한-미 FTA 관련 부정적 증언 속출 가능
 - 또한, 공청회에 앞서 공식적으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지난 2월 오린 헤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FTA 이행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주미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통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음.

- 이번 미국 대선에서 무역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의 과거 자유무역 성향을 공격하기 위해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비준을 추진한 한-미 FTA를 언급 가능

□ 한-미 FTA 불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시급

- 한-미 FTA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부정적인 의견 만 주목 받고 있어,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혜택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적극 홍보 필요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요 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 주의 상원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 한국기업의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현황과 이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 개발 및 미국 서비스수지 흑자* 등 홍보 시급
 - * '15년 기준 107억 달러(수입 : 217억 / 수출 : 110억 달러, 美상무부)
 - 과거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통상압력을 받은 바 있고 최근 미국과 TPP 협상에서도 자동차가 주 걸림돌이었던 일본의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홍보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 중
 - * 일본자동차제조협회(JAMA,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미국 경제 기여도 보고서⁸⁾
- 미국의 대한국 수출 및 투자유치 활동에도 협력해 양국간 '윈-윈' (win-win) 파트너쉽 강조
 - 지난 2월 1일 미국 상무부의 투자유치 기관인 SelectUSA와 일본의 JETRO는 협력 MoI(의향각서)를 체결하고 일본 중소기업의 미국 투자 진출에 대한 포럼 등을 진행
- 미국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정부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미국 의회 내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
- 단순 상품 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形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로의 체질 개선 시급

8) <http://www.jama.org/2015-2016-contributions-reports-shows-jama-members-dedication-to-investing-in-america/>

□ **[G2] 미-중 통상갈등 심화 … 한국 2대 수출시장의 무역장벽 및 수입규제 강화 우려**

- 철강 공급과잉,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견제로 인한 무역장벽 및 수입규제 확대 우려
- 특히,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거나, 기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수입규제 강화 가능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허프bauer(Gary Hufbauer) 수석 통상전문가는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선 전에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 형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고 전망
 - 철강 관련 수입규제 이외에도 지난 1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⁹⁾
- 중국도 최근 외국 기업의 활동 제한하는 규정 발의 등 무역장벽 심화
 - 최근 발표한 보험규정 초안에서 보험사들이 데이터를 중국 내 보관하고 중국산 암호화 기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 **[철강] 한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에 대한 대응 및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국제 협력 동참**

- 자체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의 절차, 대처방안,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자문 지원
-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해 OECD, G7, WTO 등 다자간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등 무역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제적 노력에 동참 필요

9) <http://enforcement.trade.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prc-large-residential-washers-ad-initiation-010616.pdf>



작성자

- ◆ 워싱턴 무역관 김병우 과장
- ◆ 구미팀 권오승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6-031

미국의 對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6년 6월 10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7219-60-6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미국의 對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